

인물을 아름답게 찍는다

인물을 아름답게 찍는다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센스만 집중시킬 수 있다면 추억에 남을 만한 인물사진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 좋은 인물사진이라 함은 인물의 외관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개성있는 성격과 주변분위기가 묘사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매력있는 인물의 특성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찍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지 등 그 인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찬스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매력있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민태영 / 한국사진학원장

인물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하는 인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다운 인물을 만들기 때문에 촬영자와 인물의 관계는 친숙함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개성감이 있고 매력적인 특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다.

아름다운 컬러의 효과

누구나 취미이든 상업적인 목적이든 간에 찍혀진 인물사진이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 컬러로 인물사진을 찍을 때에는 약간의 수정을 위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인물을 찍을 때 피부색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사빛을 피해야 하며 밝은 태양이 바로 머리위에 있을 때도 깊은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녹색의 반사가 있는 나무숲에서는 좀 떨어져서 찍든가 태양이 머리위에 있을 때는 인물에 대하여 전자플래시를 사용하든가 또는 흰종이를 얼굴부분에 비추고 찍는다. 아름다운 컬러라는 것은 흑의 그림자를 밝게 끌어 올렸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컬러 인물사진에 있어서도 다음 두가지는 필수요건이다. 즉 인물의 피부색조는 호감을 주어 야하며 포즈는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첫번째 것은 적절한 조명과 노출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겠으나 두번



아버지와 아들 : 어거스트 샌더

제의 자연감의 묘사라는 것은 그리 쉽게 성취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대로 찍으면 자연감이 나오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기 쉬우나 완성된 사진을 볼 때 카메라를 의식하여 어색한 포즈와 표정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의식된 표정을 떨쳐 버리기 위해 인물에게 무엇인가 움직이도록 하든가, 피사체와 대화를 나눠 긴장을 푼 상태로 하든가, 자발성에 의한 포즈를 취할 때 재빠르게 찍는 것이 그 인물에 접근된 사진을 얻게 된다. 누가 사진을 찍든간에 자기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찍는 사람마다 그 인물은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찍는 사람의 모든 관점과 생각에 따라 그 인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인물의 섬세한 감정은 강물처럼 무한하게 흐르고 있으며 따라서 인물의 양쪽이 서로 다르며, 주된 감정부분이 오른쪽에 있거나 또는 왼쪽에

있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인물의 왼쪽 부분에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은 독립되어야 한다.

흰히 트인 야외에서 사람을 찍는 것은 쉽다. 그러나 한 두 가지 언급한 한계점들이 있으며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선 알맞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어떤 장소는 조명상태가 나쁘거나 하면 적당한 배경이 없다. 훌륭한 인물 사진이란 어떤 주의가 끌려야 하며 비록 배경이 인물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두번째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이다. 그러한 인물을 복잡한 배경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영겨있고 다른 물체들이 인물과 수평선이나 수직선상에 있을 경우 사진에서는 마치 그러한 것들과 붙어있는 것같이 된다. 그럴 경우 인물이 약화되고 산만하게 된다. 즉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침식당하게 된다. 야외에서 인물사진은 넓은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세밀한 배경은 이러한 필요조건을 흔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바람직한 배경은 좀 어둡거나 그늘진 돌담이라든가, 푸른 하늘, 혹은 단순한 배경이 인물을 독립되게 만든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인물, 아름다운

건물 앞이나 색이 짙은 꽃밭이나 혹은 강렬한 풍경 앞에 세워놓고 “그대로 계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찍었습니다.”라는 것이다. 훨씬 나은 인물의 개성창조는 인물로 하여금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

그 장소의 어떤 특징에 어울리게 자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놔두고, 촬영자는 좀 떨어진 거리에서 좋은 찬스일 때 찍는 것이다. 만일 인물이 나무로 만든 병처럼 똑바로 선 채 딱딱한 표정인 것보다 사진의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일반적인 실수

이상스럽게 생각될 지 모르겠으나 야외에서 찍은 인물사진이 찍는 순간 흔들림으로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급하게 찍거나 자세와 호흡이 고르지 못하여 일어난 실수이다. 안정된 자세에서 가볍게 셔터버튼을

눌러야 한다. 다음은 배경문제가 되겠는데 카메라에 장치된 작은 파인더는 배경을 명료하게 보여주지 않으며 일안 반사식 카메라일지라도 완전 개방된 조리개상태에서 인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배경이 흐리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찍혀질 때 조리개가 조여지므로 생각보다 배경이 훨씬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도 모두 선명하게 된다는 말이다. 일안 반사식 카메라에 거의 장치되어 있는 심도버튼(pre-view)을 사진을 찍기 전에 한번 눌러보게 되면 선택된 조리개만큼 실제로 조여짐으로 정확한 심도의 범위(선명한 범위)를 사전에 알게 되어 배경정리에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경에 있어 가장 많은 실패는 너무나 많고 복잡한 것을 보여주게 되어 주제인 인물을 약화시킨 것에 있다. 그러한 것들은 본래의 인물로부터 많은 주의를 빼앗아가게 되어 어지러운 사진이 된다.

가장 나쁜 예들 중에 하나는 배경을 붉은 벽돌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다. 또한 카메라를 기울이게 하거나 수평선이나 수직선의 물체가 인물의 머리에 닿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주의를 흐트리는 배경은 빛을 받은 나뭇잎들이다. 배경의 컬러는 훌륭한 선택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아주 작은 틈새를 통해 나타나는 하늘과 반짝임은 밝은 하이라이트를



어느 예술가의 아드리아에

만들 뿐만 아니라 흰 반점들을 만들어 사진화면을 산만하게 한다.

야외에서 촬영시 또다른 실패는 어떤 탑이나 중요 기념물 앞에서 포즈를 잡도록 하고 사진을 찍는 일이다. 그러한 배경들은 그것들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물이 그 광경을 막음으로써 상당히 짜증이 나게 한다는 점이다. 실외 인물사진의 성공적인 배경선택은 가능한한 단순한 배경이 좋으며 기념물은 좌우로 배치시켜 인물과 분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촬영방법이다.

촬영시 다음의 요소를 참고하기 바란다.

① 망원렌즈를 사용하라 : 망원렌즈는 상의 왜곡이 적고 촬영부담을 인물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개성감이 넘치는 자연스러운 인물을 보여주게 된다. 만약 망원렌즈가 없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해야 그 인물을 선명하게 보여주게 되

는데 이때 가벼운 대화를 시도하여 의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카메라를 조금 낮춰라 : 카메라를 인물의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하여 인물을 침착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강조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때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한다. 여성을 찍을 때의 촬영포인트는 눈과 입이며 남성을 찍을 때 지성의 표현이 이마에 있음을 참고하라. 남녀 모두 정면의 얼굴보다 약간 옆모습(프로필)의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개성감 표현에 도움이 된다.

③ 조명을 읽어라 : 빛 자체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인물에 떨어진 조명상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사진은 빛으로 만든 그림이라는 말이 있듯이 빛에 의한 조명상태에 따라 사진이 잘 나오기도 하고 잘 안나오기도 한다. 적절한 조명은 육체적 결함을 많이 커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컬러의 아름다움을 성취할 수 있다. 인물의 조명은 밝고 어두운 차이가 적은 연조로 하라는 것이다.

④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 : 특징있는 몸짓이나 버릇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웃는 표정이 아니면 진지한 표정 중 어느 쪽이 그 인물의 개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신속 촬영이 가능하다면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몇장 찍어 두는 것도 가치있는 표정을 담고 있을 때가 많다.